

<전도의 가치 알고, 생명 구원 역사 이루자.>

2009년 12월 30일 (수)

정은별전도사 (공주 비전교회)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섭리사, 2010년 주님과 함께 생명 구원 어떻게 준비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뛰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 섭리사, 전도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가르쳐주세요.” 그 때 주신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너의 사랑 나 예수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라.

내가 사랑하는 자 데려오라.

내가 뽑고 예비하고 준비시킨 자,

세상에서 귀히 기른 자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있으니 데려오라.

시대의 때가 되면

나를 모르고 무시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은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여

휴거의 때에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며

그 수치를 다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재림에 깨어 말씀에 집중하며

내 사랑을 알고 행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의의 공적과 행실의 열매의 공적으로

빛난 인생 되어 내 나라에 오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너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라.

너는 전도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느냐?

전도는 나를 향한 내 사랑의 열매이다.

전도는 하늘나라 공적 중 최고의 공적이며,

그 공적은 영원토록 빛이 난다.

전도는 영원한 사랑,
깊고도 깊은 사랑 깨닫는 길이다.

전도는 내가 너에게 가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전도는 나를 기쁘게 하고, 감동케 하여
내 사랑의 갈증을 풀어주는 일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어
인간으로서 최고 삶의 낙,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이다.
내 심정, 내 사랑, 내 뜻을 전하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이다.

전도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과 같은 일이다.
이와 같이 전도하는 삶을 사는 자는
기적과 표적의 삶을 사는 자이다.

전도는 성령이 감동케 하여 체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위력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신앙의 힘이다.

전도는 네 육신이 뛰고 달림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불타게 하고
네 영혼 더욱 빛나게 한다.
네 의의 공적이 영계의 삶을 좌우한다.

전도는 영계에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만나게 한다.
내 옆에 붙어살아 갈 수 있는 길이다.

어떠하냐?

너무나 가치 있고 빛나는 일이 아니냐.
너무나 의롭고 선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 해야지.

이 섭리사 많은 자들아,
생명을 건져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느냐.

몰라서 못하는 게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내 나라를 보지 못하고
와 본 적 없으니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못한다.

그러니 알아라.

나를 사랑하며 범사에 찾고 부르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나와 더욱 일체되니
내가 너에게 더욱 역사하여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니
더 뜨거운 내 사랑 네가 받고,
네사랑 내가 받으니
이처럼 좋은 것이 무엇이나.

나와 같이 전도하자.
나와 같이 사랑의 결실 이루어보자.
너와 나 사랑하니
뜨거운 사랑으로 생명 나누어보자.

그러나 준비하고 행하자.

.

너희를 회개하게 하고
나의 용서로 깨끗하게 하였다.

또한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고
폭포수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사랑과 재림에 눈을 뜨게 하였다.

이 모든 준비,
내가 준비하여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 최고의 무기,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자.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높이자.
무기가 강해야 부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2010년 생명 구원의 역사,

내가 함께 하니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많은 자를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다.

뜨거운 성령으로
베드로와 같은 3,000명 전도의 역사,
5,000명 전도의 역사,
10,000명 전도의 역사 이루자.
그리할 자 있느냐. 할 수 있다.

포기치 말고, 낙담치 말며, 좌절치 않으며
기도를 방패삼고 말씀을 무기삼아
내 사랑을 전해주어라.

부탁한다. 내 섭리사야!
부탁한다. 내 섭리사야!

내 육신 되어 뛰어다오.
내 심정되어 뛰어다오.
내 눈물 담아 뛰어다오.

내 사랑하는 자들
영혼 황폐하고 곤고하여
구원의 손길 뻗어 기다리니
이 섭리사로 불러서
영원한 행복 노래하게 하자.

내 사랑의 맛,
내 사랑의 기쁨 알게 해 주자.

내 마음에 사랑의 갈증 풀어다오.

내 섭리사야,
부탁하고 기대한다.
사랑하고 소망한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섭리사, 기치를 벌인 군대가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끈 나 예수니라.